

명작마저 장식품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속물교양의 탄생: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박숙자 지음



‘부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폭풍의 언덕’, ‘데미안’... 누구나 한번쯤 들었거나 읽었을 책들이다. 이 책들은 세계명작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명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명작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한때 고급스러운 책장에 빼곡히 꽂힌 양장본이 교양의 척도가 된 적이 있다. 물론 그러한 척도가 오늘 날에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화려한 서재와 두꺼운 교양서적은 부의 상징을 넘어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기호화된다.

나아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고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과시의 소유로 표상되기도 하는데 이는 명작마저도 자본에 의해 소비되는 욕망의 부산물이라는 계급적 표지를 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문학전집 1000권의 시대다. 출판업계가 불황인 가운데도 세계문학전집만큼은 예외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은 나름의 미학적 특징과 영원불변한 삶의 진실을 내재한다는 고전적인 관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명작 출판 전성기’라는 시류의 가벼움이 온전히 해석될 수 있을까?

‘속물교양의 탄생,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의 저자 박숙자(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 이면에는 명작을 대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 태도, 다시 말해 ‘속물 교양’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명작이란 세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생각되었으며, 교양이란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다는 보증서로 통용되었다는 것으로 ‘famous’의 가치에 기댄 인정 욕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편입 욕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자는 근대화 전후 시기에 이 같은 양태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말한다. 세계문학전집은 당시 지식층의 교양을 담보하는 보증서와 같았다는 것이다. 양장된 외국 서적 등이 서재를 가득 채움으로써 명작이 독자의 자아성찰이나 타자와의 소통과 같은 본질적 측면보다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또한 문화이 국가의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로 인식되면서 명작의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문학전집’이 기획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이내 달레마에 봉착하고 만다. 과연 ‘조선적인 것’이 무엇이며 ‘조선적인 것’이 세계문학지도 내에서 상호 포섭이 가능한 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과제로 남게 된다. 한마디로 정체성과 호환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고민이 간단치 않음을 암시한다.

저자는 명작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전환을 촉구한다. 명작을 속물교양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지 마라는 의미다. 명작은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타자와 소통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쇼팽하듯 명작전집을 사서 고급스러운 서재에 진열해놓고 지적 허영을 즐긴다. 명작마저 속물적인 욕망으로 소비되고 과시되는 세태에 저자는 묻는다. 무엇이 명작이고 명작이어야 하는지를. <푸른역사·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윤리적 육식주의,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최훈 지음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2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된 책으로, 음식을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인 최훈 강원대 교수는 특히 육식의 비윤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채식주의자인 저자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 나가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도 공감할만한 내용이 적잖다.

돼지를 키우고 잡아 죽이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돼지 삼겹살을 불판에 올려 구워 먹는 게 비윤리적 아니냐는 게 저자 주장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룬 책을 읽었던 자녀가 비슷한



질문을 했다면 머리를 쥐어박으며 “빨리 먹거나 해!”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저자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는데 사람은 왜 안되냐”, “인류 역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그럼 가족도 모두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툭툭 튀어나올법한 반론들도 친절하게 반박한다.

저자는 아울러 체험에서 우리나라 채식의 장점도 소개한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적절한 안내서 역할도 한다. 읽다 보면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울 듯하다. 철학적으로 설득해 나가지만 심각한 난제를 다루는 게 아닌 만큼 어렵지 않게 책장이 넘어간다.

<사월의책·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화 가치를 판단하는 열쇠는 역사의식과 문화

‘명작이란 무엇인가’

크리스토퍼 델 지음

파렌체의 평범한 부르조아 여성의 초상화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작품인 ‘모나리자’가 된 까닭은 뭘까.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회화는 내 분야가 아니오”라고 거절했던 사연은 뭘까.

‘명작이란 무엇인가’는 대중들이 궁금할법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델은 박물관 큐레이터, 예술사학자,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예술품 보존연구가 등 전문가들이 꼽는 명작 미술품 70점을 해설을 곁들여 엮어냈다. 이들의 공통된 시각은 예술작품에 담긴 역사 의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게



작품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미술 작품을 보다 쉽게 감상하는 팁을 제공하는 셈이다.

책은 보는 시작도, 느끼는 감정도 다른 개개인 모두가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열한 점의 해바라기 중 고갱이 좋아한 노란 바탕의 시들어가는 해바라기,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가 응시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주변 상황을 곁들여 설명한다.

컬러로 시원하게 도관을 배치하고 설명을 달아 미술작품에 가까이 다가서기를 꺼리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시그마북스·3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두 천재를 통해 본 과학·정치적 환경

생성의 절대적 긍정 무한한 공감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실빈 S. 슈위버 지음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 낸다. 이 말은 흔히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일반의 속설을 뒤집는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에 큰 기여를 했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과학자로서의 삶과 당대의 시대상을 그린 책이 발행됐다.

실빈 S. 슈위버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에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라는 고전적 물리학이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 등장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대성에 대해 고민하

게 되었고 오펜하이머도 20세기 초중반에 걸친 대규모의 데이터 축적에 힘입어 양자물리학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피나는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을 전제로 한다. 덧붙여 두 사람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게 된 계기는 끝없는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평점을 향해 곳곳이 달려나간 지점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시대의 창·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임동학 지음



‘매장시편’ ‘운주사 가는 길’의 시인 임동학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를 출간했다.

8년 만에 선보인 이번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에서 임동학 시인은 생성의 세계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모든 삶이 있는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공감을 드러낸다.

시인은 생성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곧 인간의 진정한 본질인 자유의 구현과 맞닿아 있다고 보며 세상의 모순과 불화에 주목하면서도 존재

하는 것들과의 소통을 희구한다. 순환하는 시간의 영원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듯 출발도 없는

무시무증(無始無終)의 시간관과 연계된다. 또한 시인은 동화사상 등 전통사상에도 여전한 공감을 견지하면서도 세속에 묻힌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삶과 정신의 자세를 주문한다.

<솔·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급진적 조선 개혁을 외친 박제가의 삶·사상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임용한 지음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책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롯다’가 출간됐다. 지금까지 중상주의 개혁을 외친 이용후생 실학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시원스럽게 제시되지 않았다. 저자 임용한은 박제가 사상을 한마디로 외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이편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마디로 철저한 분석과 통찰의 자세를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한 서구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 박제가는 두 가지의 부조리와 싸워야 했다. 뒤

어한 학식과 명쾌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조선의 팍 막힌 국수주의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박제가 는 차별에 굴하지 않고 치열한 도전정신으로 삶을 개척했고 도약을 꿈꾸었다. 우리 것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은 만용과 감성적 폐쇄주의임을 간파한 뒤로, 그는 당연시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대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박제가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화두처럼 들린다. 진정한 애국의 길은 무엇이며 감정과 편협을 뛰어넘는 통찰이 왜 필요한 지를 말이다.

<역사의아침·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독재자를 사랑한 여인들=냉혹한 카리스마로 악명 높은 독재자들의 이중성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프랑스 다큐멘터리 여성작가인 디안 뤼크레가 사랑하는 여인과 가족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전 세계 독재자들의 숨겨진 모습을 파헤쳤다.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는 피델 카스트로, 아내를 위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았던 호메이니 등 공문서보다 연애편지를 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독재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문학세계·1만6000원>

▲키질하던 어머니는 어디게살까?=한국 전통문화, 선조의 생활상을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이 나긋나긋하게 들려준다. ‘그리운 우리문화 마중하기’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풍속’, ‘먹거리’, ‘웃고 꾸미개’, ‘민속품’, ‘미술’, ‘국악’, ‘24절기와 명절’ 등으로 나눠 물렀던, 낯설기만 했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저자가 인터넷에 2004년부터 올리고 있는 ‘일레 빛으로 빛는 하루’에 쓴 내용을 엮었다. <인물과사상사·1만3000원>

▲이우정 평전-오직 한가지를 택하였다=교수, 여성신학자,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국회의원 등 숱한 이름으로 불려온 교(故) 이우정(1923~2002) 선생의 평전으로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인 이문숙씨가 썼다. 책에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가부장적 독재 정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대를 거쳐오며 시대의 등불 역할을 했던 그녀의 삶을 세세히



살피고 있다.

▲신데렐라 카니발=독일과 설록 홀츠, 여형사 뤼랑을 주인공으로 한 독일 미스터리 스릴러의 거장 안드레아스 프란츠의 유작으로, 프란츠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난 뒤 열성팬인 다니엘 홀베가 완성해 내놓았다. 여형사 뤼랑이 납치·강간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탄탄한 스토리로 흥미진진하게 풀었다.

▲한복의 한국사=‘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돼있다’는 말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을 통해 한국사를 충실히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내놓았다. ‘청소년을 위해 썼다’는 저자 말처럼 그림과 유물 사진을 꼼꼼히 곁들이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청자 무늬로 보는 고려 백성의 소원’, ‘해양 국가이자 열린 사회였던 백제’, ‘고사탁죽도가 전하는 봉당 전치와 전쟁의 아픔’ 등 눈길에 걸만한 소재적으로 관심을 끈다. <창비·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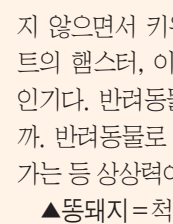
▲글로벌 인재학습법=30년간 외교관 남편을 따라 국내외를 오가며 자녀를 키운 교육컨설턴트인 저자가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성공열쇠 10, ‘내아이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들을 위한 Q & A’, ‘선진교육에서 우리 교육의 답을 찾다’ 등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이 적잖다. <담소·1만3000원>

<삼인·2만원>

▲어린이를 위한 호빗=영화로 개봉된 지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호빗 : 뜻밖의 여정’과 같은 내용의 책으로, 판타지 문학의 대부로 불리는 J.R.R. 톨킨의 소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엮어냈다. ‘반지의 제왕’의 60년 전 이야기인 만큼 이미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봤던 아이들이라면 읽는 재미도 더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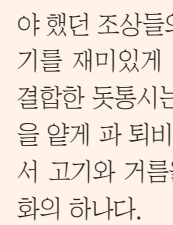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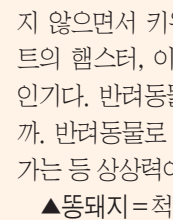
▲세잎을 뿌리는 사람-각권 1만1000원>▲레이제라블=뮤지컬에 이어 최근엔 영화로도 개봉된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을 만화로 엮었다. ‘만화로 읽는 불법의 고전’ 시리즈 첫번째 책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혼란의 거센 파도가 휘몰아친 19세기 프랑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파리 생활상, 프랑스 민중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문학동네·1만3500원>

▲똥 누고 물 내리지 마세요=풍과 오줌에 숨겨진 과학과 역사를 그림책 형식으로 풀어냈다. ‘똥당 가게’와 응가작원을 내세워 풍과 오줌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오줌으로 그림을 그리고 풍으로 물감을 만들고 소풍으로 실물을 닮은 소를 만드는 예술작품도 소개하는 등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란자전거·1만1000원>

▲아빠가 용을 사왔어요=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 사항 중 하나가 반려동물 키우기다.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키우려는 아이들 때문에 대형 마트의 햄스터, 이구아나 등을 판매하는 코너도 인가다. 반려동물로 용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로 용을 선택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등 상상력이 넘친다. <현복스·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